

< 국외훈련 결과보고서 요약본 >

성 명	박 다 정	직 급	서기관 (수석전문관)
훈련국	영 국	훈련기간	18.7.3-20.7.2
훈련기관	브리스톨 대학교, 영국통상정책연구소	보고서 매수	89매
훈련과제	일자리 중심의 수출 지원정책 재설계 방안 및 新통상전략		
보고서 제목	일자리 중심의 수출 지원정책 재설계 방안 및 新통상전략		
내용요약	<p>I. 서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미국의 "America First" 정책 등으로 인해 개방경제와 규범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통상질서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국제통상환경이 악화되고 있음 - 이러한 국제통상환경변화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이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와 한국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 정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을 일자리 창출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상정책에 있어 무역다변화를 적극적으로 꾀할 필요가 있음 		

II. 문헌 검토

- 한국의 경제발전과 빠른 성장은 학계에서 광범위한 논의 주제였으며 여러 가지 요소가 성장의 중심 동력으로 논의되었으나 크게 개발국가 이론, 신자유주의 이론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어 왔음

1. 개발국가 이론

- 개발국가는 주요 행위자로서 경제개발을 계획하고 이끄는 국가(또는 정부)를 의미하며,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역할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이론임

2. 신자유주의 이론

- 반대로 신자유주의 이론은 한국이 개방시장경제와 무역자유화를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는 이론으로 한국은 수출중심의 산업화와 지속적인 관세인하 등을 통해 개방경제를 추구해 왔다고 설명함

3. 통합적 접근

- 한국은 지속적으로 수출확대와 관세인하를 추구하여왔으며 시장가격과 경쟁에 기초한 경제 기반을 닦아왔으나, 한국정부가 1960년대에 수입을 강력

히 통제하였으며 다양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으로 수출을 지원하였다는 사실을 볼 때 개발국가 이론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양 이론을 통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음

III. 국제 통상환경과 한국의 통상정책

1. 신자유주의 이전의 국제통상환경

- 1, 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국제통상환경은 완전한 자유주의 질서에 기반하기 보다는 자유주의(liberalism)와 개입주의(interventionism)이 혼재하는 자유주의(embedded liberalism)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세계대전 이후의 경제재건 및 국내적 안정과 복지가 우선순위 과제였기 때문임

2.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국제통상환경

(1) 이데올로기로서의 신자유주의의 특징

- 그러나, 1970년대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양차 세계대전 이전에 확산되었던 고전적인 자유주의가 다시 대두되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림
- 신자유주의 하에서는 자유시장경제체제와 작은 정부가 강조되었으며, 시장경쟁강화를 위한 통상확

대, 강력한 무역자유화가 추구됨

(2) 신자유주의 하에서의 국제통상환경

- 이러한 신자유주의 하에서 통상환경이 급변하였는데, 대표적으로 197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 GATT 체제에서 대규모의 관세인하가 추진되었으며, 통상 아젠다도 관세에서 비관세조치 및 규범,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1990년대 들어 WTO가 설립되기에 이룸
-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들이 WTO에 가입하였고, 한편으로는 개별국가 간의 지역무역협정(RTA)도 급속하게 증가하였음

3. 신자유주의 하에서 한국의 통상정책

(1) 강력한 수출지원정책

-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통상질서 하에서 한국 정부는 강력한 수출지원정책을 통해 수출확대를 추구하였음
- 한국정부의 수출지원정책은 1960년대부터 추진되었는데 당초에는 수많은 수출인센티브(세제, 관세,

및 수출보조금, 수출성과시스템 등과 같은 비관세 정책 등)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규제였으나, 1967년 GATT 가입 이후에는 GATT 규범에 따른 적극적인 관세인하를 통해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함

- 이는 수입에 대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수입확대의 결과도 낳았으나, 다른 국가의 관세인하를 통해 한국이 다른 시장으로 더 많이 진출할 수 있게 하였으며 한국 수출의 급격한 증대에 기여함
- 한국은 1995년 WTO 설립시에는 WTO 원멤버로 참여하였고 정부조달협정(GPA), 정보기술협정(ITA) 등 복수국간 협정에도 참여하였으며 이후 52개 국가와 양자 FTA 체결을 통해 무역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함

(2) 수출지원정책의 성과

- 신자유주의 국제통상질서 하에서의 한국의 이러한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과 그에 따른 수출확대를 통해 한국은 19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었음
- 특히, 수출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는데 1970년대부터 1990년대의 시기에 제조업분야에서 수출을 통한 고용이 7.4% 증가함

	<p>(3) 수출지원정책의 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이러한 수출 확대의 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과하고, 한국의 수출지원 정책은 두 가지 큰 문제점을 가짐 - 이는 여타 국가에 비해 경제가 과도하게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이 중국과 미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임 - 이는 한국의 경제를 해외 경제상황에 취약하게 만드는 요소이며, 특히 현재 통상환경과 같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됨 <p>IV. 국제통상환경의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p> <p>1. 국제통상환경의 변화: 신자유주의의 위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신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는 미국의 급격한 정책변화로 인해 크게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적극적인 수출지원정책과 함께 한국 수출확대에 기여해 온 국제통상질서가 한국 수출에 비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p>(1) 트럼프 정부에서의 미국 통상정책 변화</p>
--	--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정무역' 및 '보호주의'에 기반한 신념하에 TPP에서 탈퇴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다 관철시킬 수 있는 양자협상을 추구하고 있으며, NAFTA와 KORUS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을 개정하고, 세이프가드를 활용한 보호무역조치를 취하였고, 일방적인 관세를 철폐하고 알루미늄에 부과하고 1300여종의 중국상품에 대해 징벌적인 관세를 부과하였음
- 또한 다자적인 관점에서는 WTO 분쟁해결절차 재판관의 임명을 거부함으로써 WTO, 다자무역체제를 무력화시켰음

(2) 신자유주의 통상질서의 위기

-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세계무역을 위축시키고, 보호주의를 확산시키며, 국가간의 무역협력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의 기반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2. 한국 통상에 미치는 영향

- 한국의 무역은 이러한 세계 무역환경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1) 미국의 신통상정책의 직접적인 영향

-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KORUS 재협상, 철강제품에 대한 자발적인 수출제한, 대형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 및 셀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등이 있음

(2) 신자유주의 통상질서의 위기에서 오는 영향

- 하지만, 신자유주의 통상질서의 위기에서 오는 영향이 훨씬 심각한데, 미중 무역전쟁에 따라 아시아의 무역과 산업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통상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은 2019년 피치사에 의해 미중 무역전쟁으로 가장 타격받을 국가로 선정되기도 하였음
- 이는 앞서 언급했던 한국의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별히 한국 수출의 40% 가량이 중국과 미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임

V. 한국의 新통상전략

- 따라서 이러한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 될 것이나 자원이 부족하고 작은 내수시장과 불충분한 국내수요를 감안할 때

	<p>무역의존도를 낮추기는 쉽지 않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므로, 차선책으로 한국의 무역을 최대한 다변화시키는 것이 세계무역환경 변화에 대한 한국 경제 및 일자리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일자리를 계속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임 - 무역을 다변화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무역 상대국은 아세안, 라틴 아메리카, 유럽 등을 생각해볼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의 재개도 생각해 볼 수 있음 <p>1. 아세안과 라틴 아메리카와의 통상관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은 양질의 노동력과 낮은 노동 비용을 가졌으며, 중국과 함께 세계 공장으로서 급부상 중임 - 또한, 한국의 수출과 아세안의 수입 구조는 상호 보완적이며, 아세안 국가와 한국 사이에 정치적 갈등도 미미하며, 지리적으로도 가까우므로 최상의 무역상대가 될 수 있음 - 그러나 베트남만이 한국과의 교역량 10위에 드는 국가이며, 여타 아세안 국가와의 무역량은 잠재력에 비해 낮은 수준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편, 한국은 남미국가와의 교역량이 저조한데 이는 지리적인 거리 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가 과거에 폐쇄 경제정책을 추구하였기 때문임 - 그러나, 최근 남미국가는 자원, 농업 중심의 경제에서 제조업 중심의 경제로 변모를 꾀하고 있으며,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주요국가가 무역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 따라서, 아세안 및 남미지역과의 무역확대 기회가 크며, 이를 잘 활용한다면 미, 중에 대한 무역의존도를 낮출 수 있음 <p>(1) 메가 FTA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세안 및 남미지역과 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좋은 방법은 RCEP 및 CPTPP 등 이들 국가를 포함하는 메가 FTA에 참여하는 것이며, 한국은 현재 RCEP에 참여하고 있음 - 그러나, TPP 및 미국의 TPP 탈퇴 후 일본 주도로 이루어진 CPTPP에는 경제적, 정치적 이유로 참여하지 않고 있음 - CPTPP 발효 이후 한국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업계는 CPTPP 역내에서 일본에 대한 한국의 비교우
--	--

위 상실을 염려하고 있는 바, 아세안 및 남미국가와의 무역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GVC에 참여하기 위해서 동 FTA 가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 국가와 양자 FTA 체결

- 한편, 메가 FTA 이외에 아세안 및 남미 주요국들과 개별 FTA도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 바, 아세안의 경우 한-아세안 FTA가 있어도 개별 양자 FTA를 추진한 국가(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와의 무역규모가 더 크며, 개별 FTA가 무역 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임

2. EU, 영국 등 유럽과의 통상관계 관리

- 유럽과의 통상관계는 한-EU FTA 체결 이후 한국의 대EU 적자가 증가하면서 강조가 덜 되어온 측면이 있는데 세계 3대 경제권인 유럽국가와 무역관계 강화도 중요함
- 한편, 영국의 브렉시트가 한-영 무역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바, 한-영 FTA를 발빠르게 체결한 것은 고무적이며 기타 무역증대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 등을 통해 양자 무역을 확대 나가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우리 기업이 많이 나가있는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등 V4국가는 대표적인 우리 무역흑자국인 바, 투자, 사회적 기여 등을 통해 이들 국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여 대한 무역적자에 대한 불만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p>3. 북한과의 통상 재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지막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개성공단과의 통상협력 재개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개성공단은 한국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토지 및 노동력을 결합한 공단으로, 당초 한국은 개성공단을 중국으로 생산시설을 이동하는 것을 대체하고 나아가 국제무역을 위한지구로 발전시킬 계획이었음 - 개성공단 재개가 북한 비핵화의 조건으로 언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함 <p>VI. 결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자유무역주의의 위기에서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한국의 경제 및 일자리를 살리고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미중 무역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시급함 - 아세안 및 남미지역과의 무역관계 강화, 유럽과의
--	---

	통상관계 관리, 나아가 북한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개성공단 재개 등을 통해 무역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할 것임
--	---